**[재산분할 기준]**

*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
*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획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기여를 전제로 분배하는 것이 목적.
*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임.**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슴. 특유재산 또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슴.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슴.
* 요즘 **특유 재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슴. **특유재산 또한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대신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하게 됨.**
* 형성과정에 일방이 100% 관여한 명확한 내용 등이 없다면, 부부관계를 맺은 이후,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
*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 선산, 농지, 식재. 잡초 제거.단 한번도 노동 투입이 된 것도 없고, 문제 해결에 관여하고자 하지도 않음.)
*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
* 통상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 50%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 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내조, 자녀 양육 등으로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슴.**
*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 혼인 기간이 20년 넘을 정도로 장기간일 때,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기도 함.**

(악용의 소지가 있슴. 결혼 🡪 이혼 🡪 재산 획득. 자산을 보유하고, 외벌이 하는 가장에게, 특히 내조나 자녀 양육 등에 신경쓰지 않고 하는 배우자의 경우.)

*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의 증식 혹은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고 보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는 추세. 맞벌이를 하며 10년 넘게 혼인을 유지한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포함한 전 재산의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림. 설령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긴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인정하여 많게는 50%의 재산분할을 인정**

**[관련 내용]**

1. **특유재산**
2. 아파트 1채: 증여 자금으로 결혼 직전 매수.

* 공동 거주, 2001년 이후, 함께 삶으로서, 기여도 인정 가능.

1. **농지 2 필지 (각기 다른 지역)**

* 1988년 父에 의해 매수 🡪 2005년 형제에 증여 (공유 지분 보유)
* 34년간 친가에 의해 보유, 유지 (선산과 같은 개념.)
* 이후 두 형제에 의해 유지, 관리.
* 농지 두 필지의 유지 및 재산 증식에 배우자 기여도 전혀 없슴.
* 노동 투입도 없었고, 급여 소득에 의해 생활 유지하였고, 농지 운영에 관련된 이슈도 많았으나, 배우자는 전혀 관여하라고 하지도 않음. (한 필지는 아예 가본 적도 없슴.)

1. **기여도 및 부부의 협력**
2. **결혼 전**

* 직업: 배우자 (매장 판촉사원, 단순 노무직) vs. 본인 (사무직)
* 결혼 전 본인과 가족의 신분/학력 재산 보유 정도 속임.

|  |  |
| --- | --- |
|  | 내용 |
| 가족의 신분 | - 처의 오빠: 2급 공무원 🡪 지하철 역무원  - 처의 동생: 산부인과 의사 🡪 고등학교 1학년 중퇴 |
| 배우자 학력 / 생활 | - 이화여대 졸업 🡪 고졸  - 가출 🡪 친구 집에 거주 |
| 보유재산 | - 해운대 달맞이 길 (언덕위의 집 주택 보유) → 없슴 |

1. **결혼 전후 (배우자의 초기 자금 기여 전혀 없슴)**

* 결혼 전, 아버지의 증여 자금으로 허름한 잠실 주공 아파트 구입 (13평). 실거주.

(당시 父의 제안으로 분당 신축 아파트 전세 혹은 잠실 주공 아파트 매수 선택 요청 🡪 당시 신혼생활의 편이보다는 투자 가치 측면에서, 주공 아파트 매수, 2001년 5월

🡪 재테크의 성공)

* 배우자 결혼 비용이나 혼수 부담 없었슴 (부모님의 배려.)

1. 결혼 후

* 2005년 父의 토지 증여 2필지 (形과 공유 지분)
* 1998년 父의 자금으로 농지 2 필지 매수.
  + 필지 1: 나무 식재, 직접 경작 (본인도 주말에 참여.). 증여 후에 직접 관리
  + 필지 2:: 각기 다른 타인 3명에 의해 토지 무단 점유 🡪 본인이 문제 직접 해결 🡪 관리, 운영.

1.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실직, 배우자의 사교육 의존, 소비 성향 대비 본인의 저축, 투자성향으로 자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
2.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실직 (2009년 3월)**

* 배우자의 비이성적인 언행으로 회사에 물의 → 해당 직원의 퇴사 → 본인에게 권고사직 (해고), 1개월 급여 수령. 퇴사.
* 본인 마케팅 팀장으로 한 식품회사에서 근무. 신규 팀원을 뽑는데, 난데없이, 배우자의 해당 사원의 과거가 문제가 있다고 절친 (친구의 예칭 Q)에게 들었다고 함. 또한, 해당 팀원이 본인을 보고 “변태” 같다고 했다고 함. (참고로, 본인은 일과 가족, 그리고 자기계발 위주로 생활했고, 배우자도 이 점에 대해서는 100% 인정함.)
* 이와 관련 배우자는, **업무시간에 본인의 핸드폰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지속해서 본인을 괴롭힘**. **괴롭힘 정도가, 전화를 안 받으면, 수십통을 전화를 하고, 사무실로 전화를 함. 사무실 전화 톤을 낮게 하여 받지 않자, 다른 직원이 당겨 받자마자, 고성으로 이성을 잃은 채 행동하여,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짐. 괴롭힘에 못 이겨, 해당 팀원에게 본인을 “변태”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물음. 없다고 함. 그리고 그 직원은 인사부에 이야기하고 퇴사함.** 🡺 그리고 권고사직 받음.
* 또한 당시, 다른 퇴사 직원과 함께 매장을 돌면서, 택시도 아닌, 버스를 타고 이동. 이를 의심함. (처가가 “사주”를 맹목적으로 맹신하여, 본인의 사주에 바람을 핀다는 게 있다고 하여 의심을 함. 본인은 일이 끝나면, 회식이 없는 한, 바로 퇴근하고, 또한 술과 담배를 못하기 때문에, 유흥을 좋아하지 않음. 한 번은 장모가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본인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오히려 본인을 의심하여, 본인이 현재 어디 있는지 의심을 하고, 집에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여 바로 집에서 함. 어처구니 없었던 상황
* 2009년 3월 실직 후, 2개월 동안 급여 없었슴. 본인의 노력으로 2009년 5월에 국내 대기업에 급하게 입사. 그러나 일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09년 7월 외국계 회사로 입사하게 됨. 본인의 해고 이력은, 본인이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면서, reference check 때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점이 됨. **만약, 본인이 실직 후,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처분은 불가피 했었슴. 즉, 배우자는 재산의 유지, 증식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본인의 노력으로 재산을 유지, 증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임.**

1. **사교육에 대한 의존**

* 아들이 미취학 시절 영어 유치원 포함, 월 150만원 수준의 사교육비 투여
* 초, 중학교, 영어학원, 농구교실 등을 통하여 월 100만원 수준의 사교육비 투여.
* 배우자는 미취학부터, 아이에게 시달림을 피하기 위해, 사교육을 보내고, 아이가 학원 과제 및 테스트 성적 관리를 안하고, 또한 아이도, 학습에 대한 열정도 없었던 바, 사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었슴. 특히 영어의 경우,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켰으나, 실력의 향상이 없었음.
* 2017년 이직 후,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중. 2020년 4월, 사무직에서 매장 발령 (노무직 수행), 지난 3년간 연봉 5%씩 삭감. 노동 중재 위원회 제소, 패배 등을 통하여, 실직의 위기를 강하게 받음. 실직 및 노후에 대한 부담. 아이의 학습에 대한 태도, 습관, 공부 방식에 대한 문제 등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음을 깨닫고, 사교육 비용을 줄임.
* 배우자와의 논쟁의 주요 쟁점은, 미국 이민문제와 그리고 아이의 교육에 대한 문제였슴.
* 사교육 비용의 부담 등으로 중산층의 50% 이상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보도 자료. 아이에게 입시를 위한 사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라는 조언에 공감.
* 배우자와 아들의 불만, 불평에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는 사교육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고자 함.
* **만약 배우자의 뜻대로, 사교육비를 썼다면, 지금의 현금성 자산은 없었다고 보면 됨.**

1. **소비 (배우자) vs. 저축/투자 (본인)**

* 배우자는 물론 아껴서 쓰나 소비성향이 강하고, 또한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바, (참고로 결혼 이후, 책을 끝까지 읽어본 것을 본 적이 없고, 재테크 관련하여 정보와 지식을 쌓은 적도 없슴. 예금 통장과 생명보험이 다 임.)
* 배우자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아이 엄마들 중에 본인이 나이가 많은 바, 본인이 주가 되어, 지출을 하는 등,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기 보다는, 이런 소비 습성이 있었슴. 항상 생활비가 적다고 불평했지만, 만약 더 할당했다고 하더라도, 저축은 늘지 않고, 개인을 위한 소비지출만이 늘었을 것임. (이는 생활비의 쓰임과 카드 내역을 조사하면 파악이 가능할 거라 추정)
*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근검 절약하여, 결혼 전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저축하였고, 주식 등 재테크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절세방법 등에 대한 파악과, 또한 미국 투자이민 자금 50만불을 마련하기 위해, 식대 등 개인 비용 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저축/투자를 통하여, 목표 자금을 만들고자 함.
* 최근 발언: 본인은 현재 실직위기와 건강상의 악화 상황 속에서도, 실직이 미칠 더 큰 영향을 고려해서, 버티고 있슴. 이런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최근 진술을 보면,

1. **자기계발 정도 🡪 경제적 기여 비중 확대**

* 본인은 주중에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퇴근 후, 바로 귀가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였슴.
* 본인은 학부 시절, 미국 어학연수를 통하여, MBA 과정을 준비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 후, MBA 과정을 밝게 됨.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국계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라가게 됨. (주말에도 출근하고, 밤늦게가지 일하면서, 성과 창출)
* 2010년대 초반까지는 주식 관련, 2010년 후반 이후부터는, 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 이민 관련, 부동산, 절세 방법 등을 공부하게 됨. 재테크로 인한 자산 확대
* 반면 배우자는, 결혼 전 단순 노무직에서, 본인의 MBA 기간 동안, 시부모의 100% 지원으로,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다니는 등, 배우자에게도 학업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영어 실력 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음.
*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본인에게 많은 시간이 있었고, 배우자가 희망하는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나, 단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이 없슴. 또한 본인과 달리, 배우자는 하루의 일과를, 수면 (보통 9시간 이상), 전화 통화 (본인 험담 포함), 청소, 운동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어울림에 시간을 할애했지,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여하지 않았슴. 아이의 교육에 본인의 노력을 단 1%도 투자하지 않았고, 못했고, 사교육에만 의존하게끔 함. (아이에게 시달리는 시간은 줄이고, 배우자 본인만의 시간을 원함.)

1. **내조와 양육문제**
2. 내조문제

* 내조의 사전적 의미: “아내가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① 배우자의 본인에 대한 비하, 험담.**

**② 본인의 직장에서의 실직 위기, 노무직 업무 수행으로 건강상의 악화**

*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귀착. 외벌이 🡪 급여 소득이 끊겼을 때, 문제점을 인지 못함. 위기 의식이 전혀 없고, 향후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 인지, 대비 안함. 개인의 문제인데, 돈은 공동의 몫 ?
* 현재 보유 자금 (유동 자산): 1년 미국 자금도 안됨.

③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실직. (상기 상세 언급)

1. 양육문제

① 현재 아이는 고3 수험생 🡪 이혼 소송 진행

- 고 3 수험생 엄마로서 입시 정보 전혀 모름. 알고자 하지도 않음.

② 아이는 시달림을 주는 존재

- 배우자 본인이 직접 교육시키는 시간 없고, 사교육에만 의존

- 아이에게 시달림받기 싫어, 사교육 기관 보냄. 아이의 학습 정도 관심 없슴.

③ 훈육 포기

- 일관성, 지속성 없슴.

- 휴대폰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 숨겨 놓음 🡪 풀어줌, 흥정 🡪 방관. 🡪 다툼

-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한 불법 성인 동영상 시청 🡪 중독 (이틀에 한 번꼴)🡪 학습에 방해. (현재 민법상 미성년 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합리화, 방관 자세)

[적용]

1. 보유자산

|  |  |  |
| --- | --- | --- |
|  | **현시세** | **증여** |
| **아파트 (2001.3,4月)** | 23~25억 | - 특유재산: **2001년 증여자금 및 본인 자금 일부 (100% 부담)**  - 공동생활  - 매입 + 재건축 추가 분담금 (총 2억 5천 ~ 3억 수준)  - 실직 🡺 유지 어려움. 처분 |
| **토지 2필지 (05.05.16)** | 12.4억 공시지가 기준 | - 1988년 父 토지 매수, 2005년 증여 (兄과 각각 1/2 공유지분)  - 2022년: 699백만 + 540백만 (  - 개발제한구역 (환금성 無)  - 증여 후 토지 불법점유 문제 등 본인이 직접 해결,  토지 관리 등 (주말 활용)  - 배우자는 골치 아픈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 조차 거부. |
| **현금자산** | 투자이민자금 | - $50만불 (위험성 자금) 환수 가능 시기 최소 3년 이후.  - 급여소득 + 투자 + 저축/절약 + 대출 (6천만원, 상환 완료)  - 사교육비 & 소비 vs. 저축. |
|  | 현금 | - 7천만원 상당  ($40,000: 투자이민 자금 수수료 비용 환급.  개인 협상, 노력의 산물, 향후 지출 비용.) |
| 주식 | 3천만 |
| 父관리 | ? |
| 기타 | 퇴직금, 국민연금 등 |
| 기타 | 차량 | 시세 600만원 |

* 현금 자산을 제외하면, 특유재산.
* 10억의 산정 기준 (토지를 제외하고, 전체 자산의 30% 수준 요구)
* 초, 중학교, 주말에, 아이를 도서관, 혹은 직장에 데려가, 본인은 일하고, 아이는 공부시킴
* 집에서 본인이 직접 수학, 영어, 농구를 가르침.
* 배우자 사교육에 의존. 돈 소비 (저축 없슴)
* 일방의 재테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난자.
* 부부 중 일방이 재산 일부를 탕진한 책임이 있는자.
* 돈을 벌지 않고.. 게으름. 향응. 개미와 베짱이